

1960년대 과학소설의 지구 종말 시나리오를 통해 본 정치, 과학, 환경에 대한 사고실험 : 커트 보니것의 『고양이 요람』을 중심으로*

손나경**

〈차 례〉

1. 머리말
2. 냉전시대의 종말서사 『고양이 요람』
3. 인간성과 윤리의식이 없는 과학자의 위험성
4. 요나의 서사, 보니것의 서사
5.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1960년대 대표적인 지구 종말 과학소설인 커트 보니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
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A2A01041049)
이 논문은 2023년 5월 20일에 열린 한국영미어문학회 2023년 봄 학술대회
에서 발표된 「냉전 시대의 지구 종말 시나리오, 『고양이 요람』의 경우」를
심화 수정 보완한 논문임

** 계명대학교 타볼라라사 대학 부교수

것의 『고양이 요람』을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발 인자로 어떻게 종말까지 이르게 되는가에 대한 사고실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양이 요람』의 지구 종말 시나리오는 냉전 시대의 시대적 불안을 재현한다. 필릭스 호니커 박사가 만든 아이스-나인이라는 신물질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과학자와 패권야욕을 가진 정치가가 연합했을 때 원래의 목적과 달리 인류 전체와 지구환경을 멸망으로 이끄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는 『고양이 요람』의 종말에 대한 사고실험적 특성과 함께 서술자인 요나가 이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이 인간의 우행으로 인한 공멸에 대한 경고이며, 이런 경고를 할 책임이 작가에게 있다는 보니것의 인식에서 비롯되었음을 살펴보았다.

주제어: 커트 보니것, 『고양이 요람』, 종말서사, 아이스나인, 1960년대, 반전운동,

1. 머리말

커트 보니것(Kurt Vonnegut Jr.)은 『제5도살장』(*Slaughterhouse-Five*, 1969)으로 유명한 미국의 과학소설 작가이자 반전운동가이다. 2차 세계대전 참전 중 독일군 포로가 되어 포로수용소에 수감되었던 보니것은 포로생활 도중 약 13만 명의 민간인 인명피해를 낸 연합군의 독일 드레스덴 폭격을 겪었고 이러한 그의 경험은 『제5도살장』(1969)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연합군의 드레스덴 공습은 대량살상 무기의 파괴적인 힘과 민간인 대량학살로 나타난 세계전의 무자비한 특성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전쟁의 잔인성과 무의미함은 보니것의 여러 작품의 주제가 되었으며 작가의 직접적인 반전운동으로도 이어졌다. 『제5도살장』보다 6년 앞서 출간된

『고양이 요람』(*Cat's Cradle*, 1963) 역시 작가의 이러한 행보와 무관치 않다.

본 논문에서는 무명의 보니것에게 과학소설 작가로서의 인지도를 얻게 한 그의 네 번째 소설, 『고양이 요람』¹⁾에서 볼 수 있는 세계종말이 과학소설적 사고실험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사고실험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또 다른 세계전쟁에 대한 위협감이 고조되었던 냉전시대의 시대적 인식을 표현하고 있음을 말할 것이다.

『고양이 요람』은 『제5도살장』과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의 대량학살 무기와의 연관성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펠릭스 호니커 박사(Dr. Felix Hoenikker)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개발자²⁾이며, 신무기를 개발한 사람으로 그려지기 때문이다. 『고양이 요람』은 호니커 박사가 개발했던 아이스-나인이라는 미지의 물질이 위험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감으로써 온 세계가 종말에 이르게 된다는 아포칼립스 과학소설(Apocalypse SF)이다.

아포칼립스 과학소설, 혹은 종말 서사는 2차 세계대전 후 크게 유행했던 과학소설의 서브장르이다. 미국과 소련 간의 핵무기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핵전쟁과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는 전 세계인이 공유하는 공포가 되었다. 이 당시 종말을 다룬 과학소설은

1) Penguin Classics에서 출판된 *Cat's Cradle*의 서문을 쓴 벤자민 쿤켈(Benjamin Kunkel)에 의하면 커트 보니것은 자신의 작품 중에서 『고양이 요람』과 『제5도살장』에 A+를 주었는데 이 두 작품은 각각 얼음에 의한 종말과 불(폭탄)에 의한 종말을 보여준다.

2) Kurt Vonnegut, *Cat's Cradle*, New York: Penguin Classics, 1963, 2008, p.4. 서술자 요나는 호니커 박사를 “첫 번째 원자폭탄의 아버지들”(Fathers of the first atomic bomb)이라고 불리는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소개한다. 호니커 박사는 보니것이 제너럴 일렉트릭사에 근무할 때 보았던 1932년 노벨상 수상자, 랭뮤어 박사(Dr. Langmuir)와 원자폭탄의 제작자였던 J. 로버트 오펜하이머(J. Robert Oppenheimer)가 모델이었다고 한다. 이후 『고양이 요람』의 인용구는 본문에서 (CC 인용 장)으로 대체할 것이다.

양적으로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종말을 촉발하는 기폭제에 대한 상상력도 다양해졌다. 『고양이 요람』에서 세계를 종말에 이르게 하는 아이스-나인은 어는점이 화씨 114.4도(섭씨 45.8도)인 얼음으로, 화씨 114.4도 이하의 물이 아이스-나인에 닿아버리면 순식간에 구조가 재조합되어 새로운 아이스-나인이 된다. 해병대 장군이 진창이나 늪지대처럼 탱크나 군대가 지나가기 힘든 길을 열려서 전투를 수월하게 수행하기 위해 만든 물질이며, 인간을 직접적으로 살상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강, 바다처럼 모든 액체가 있는 환경을 파괴하는 물질이기도 하다.

원래 종말 서사는 과학소설 이전부터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꾸준히 존재했었다. 기독교에서의 종말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계의 종말인 동시에 천년왕국이라는 이상향의 건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종말과 희망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중세 이후 ‘종말’이라는 용어는 종교적 의미보다는 재난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사회문화적으로 더욱 폭넓은 함의를 지니게 되었으며 (Robinson 43) 그런 의미에서 종말서사는 종말의 치명성에 대한 상상이면서 동시에 치명적인 문제를 촉발할 각종 재앙에 대해 경고하는 예언이기도 하다.

종말서사에서 볼 수 있는 파국의 원인을 살펴보면 시대적, 지역적 개별성에 좀 더 다가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파국의 상상력의 중심에는 항상 당대의 사회문화적 위기의식이 수반되어 있기 때문이다(홍덕선 8). 냉전시대인 1950-60년대 종말 서사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핵무기가 사용되는 세계대전에 대한 것이었고, 이러한 파국이 필연성과 동시에 우발성을 가진다는 점 때문에 공포는 더욱 심화되었다. 1957년에 출간된, 핵무기로 인한 종말서사의 시발점인 네빌 슈트의 『해변에서』의 경우, 강대국 사이의 분쟁이 아닌 약소국 알바니아와 나폴리,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의 핵무기 사용이 영국,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개입으로 이어

저 북반구 전체가 파괴되고 그 여파는 전쟁의 당사자가 아닌 남반부에까지 미친다. 1965년에 쓰였던 우리나라의 과학소설 『완전사회』의 경우에도 전쟁의 시작은 “알비나”와 “에스야”라는 유럽의 약소국에서 사용한 핵무기이다. 통제력이 발휘될 수 없는 곳으로부터 우발적으로 종말이 시작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은 집단적인 공포를 낳는다.

커트 보니것의 『고양이 요람』에서의 종말 역시 아이스-나인이 제3 세계 국가인 산 로렌조(San Lorenzo)의 독재자 파파 몬자노(Papa Monzano)의 손에 들어감으로써 본격화된다. 마치 도미노가 쓰러져 끝이 나듯, 호니커 박사가 별생각 없이 만든 신물질은 그들의 자녀들의 손에 들어가고, 다시 파파 몬자노에게로, 다시 전 세계로 퍼져간다.

작가, 서술자, 보코논교의 종교지도자는 이 종말의 과정이 실체가 아님을 계속 환기시키는데, 종말에 이르는 과정이 우발적이고 희극적이라는 점은 종말의 두려움보다 오히려 허무함이 부각되게 한다. 르귄은 진리를 ‘상상의 문제’라고 하였다(손나경 5). 이는 진리가 상황에 따라 상대적이고, 상상으로 파악되는 것이기에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소설의 서사적 방식도 상상을 통한 사고실험에 의해야 한다는 것이다(손나경 5). 그렇다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님을 전제하고 펼쳐지는 『고양이 요람』의 종말서사는 과학소설이 보여줄 수 있는 사고실험의 극화이기도 하다.

작가는 『고양이 요람』에서 사실과 허구를 혼동하게 하고, 종말에 대한 공포를 유머로 대체하며 종말의 우발성을 과장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인간의 본질적 우행과 종말의 필연성을 부각한다. 라이언 웨플러(Ryan Wepler)는 이 작품의 이런 특성에 대해 “보니것이 우스꽝스럽게 과장하여, 다른 방식으로는 알아차릴 수 없는 우리와 우리 세계에 대한 진실을 인정하게 한다”(Wepler 99)라고 하였다. 즉 “정치계와 과학계의 가상의 행동으로 세상이 종말에 이

르는 과정을 통해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최후의 재앙에 대해 다루고, 동시에 인류가 가진 인간성에 대한 성찰을 보여주는 것”(Robinson 43)이다.

이 글은 『고양이 요람』의 종말서사의 특성이 종말에 대한 실험적 시나리오에서 기인함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 작품이 출간되었던 1960년대, 즉 냉전시대의 핵무기에 의한 종말의 두려움과 종말의식이 이 작품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3장에서는 『고양이 요람』에서 아이스-나인이 윤리의식이 없는 과학자와 패권욕에 찬 정치가의 조합에 의해 인간과 환경을 말살하는 치명적인 파괴인자로 변하는 것에 대하여, 4장에서는 반전운동가였던 보니것이 과학소설 작가의 사회적 역할을 서술자인 요나를 통하여 말하고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냉전시대의 종말 서사 『고양이 요람』

1) 냉전시대의 종말 의식

정치학자들이 말하는 ‘안전보장의 딜레마’란 한 국가가 자국의 안전을 위해 취한 행동으로 다른 나라의 안전이 약화되고, 다른 나라도 이에 대한 행동을 취하다 보니 국가 간의 불신이 점점 깊어져 가는 현상을 말한다(개티스 47). 냉전시대의 딜레마가 바로 이런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냉전이란 강대국 간의 실제 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대치하는 ‘차가운 전쟁’ 상태이다. 그러므로 국가 간의 불신 속에서 어떤 우발적인 인자가 방아쇠를 당긴다면 핵무기가 이미 개발된 상황에서 발생하게 될 제3차 세계대전이 전 인류를 종말에 빠뜨리게 만들 것이 확실했던 것이다.

냉전 분위기가 정점으로 치달았던 1960년대는 자국민의 결속과 국제 패권 장악을 위해서 강대국의 원자력 무기 개발과 우주개발 경쟁이 치열했던 시대였다. 미국에 이어 소련도 1949년에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했고 같은 해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을 건립하여 공산권의 세력은 더욱 막강해졌다(개티스 58-59). 1957년 소련이 스푸트니크 1호의 발사에 성공하자 미국 정부는 미국항공우주국(NASA)을 출범시켰다. 세계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호가 지구 주위를 돌 수 있었던 것은 인류 최초의 ICBM인 R-7에 인공위성을 탑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소련이 스푸트니크 호를 성공적으로 개발했다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우주개발에서 소련이 미국을 앞질렀다는 의미와 함께 미국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면 불과 반시간 안에 미국에 있는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었지만, 크렘린의 지도자 니키타 흐루쇼프 공산당 제1서기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다”(개티스 102). 특히 스푸트니크 호 발사에 성공한 1957년부터 1961년까지 흐루쇼프는 노골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의 어느 도시라도 파괴시킬 수 있다고 장담했다(개티스 104).

『고양이 요람』이 출판되기 전해인 1962년에는 미소 간의 갈등이 최고조로 올라 핵무기를 사용하는 전면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때라고 평가되는(CC vi) ‘쿠바 미사일사태’가 벌어졌다. 소련이 쿠바에 비밀리에 공격용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미국 본토 전체를 사정거리로 커버할 수 있는 미사일과 핵탄두를 배치하려고 한다는 것을 미국이 알아낸 것이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소련이 계속 미사일 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서반구 국가를 타격한다면 이를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공식성명을 발표하였다. 결국 10월 28일 흐루쇼프가 백기를 들고 튀르키예에 배치된 미국의 중거리 탄도탄의 철수를 조건으로

쿠바 미사일 기지 설치를 중단하겠다고 하여 사태는 해결되었다.

포스트아포칼립스 SF를 열었다고 평가되는 네빌 슈트의 『해변에서』와 모데카이 로쉬월드의 『레벨 7』가 1957년에 출간되었던 것은 이런 시대적인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영화 <혹성탈출>(The Planet of the Apes, 1968)의 원작인 프랑스 작가 피에르 불(Pierre Boulle)의 소설 『혹성탈출』(The Planet of the Apes)이 1963년에 출간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종말서사인 김윤주의 「재앙부조」도 1960년에 『자유문학』을 통해 출간되었다. 우리나라 과학소설의 시발점으로 평가되는 『완전사회』(1965) 역시 서사의 출발을 핵무기를 동원한 제3차 세계대전에 두고 있었던 것에서 볼 수 있듯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 전 세계인이 핵무기의 사용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고양이 요람』의 아이스-나인 획득 경쟁은 미소 간의 핵무기 개발 경쟁을 뒤틀어 재현하고 있다. 호니커 박사가 아이스-나인을 개발하고 첫 번째 희생자가 된 후 그의 3자녀는 아이스-나인을 나눠 가졌고, 미국과 소련은 이 물질을 얻기 위해 이 자녀들에게 접근한다. 첫째들인 프랭크(Frank Hoenikker)는 난파된 곳에서 우연히 만난 독재자 파파 몬자노에게 그것을 주었다. 딸 안젤라(Angela Hoenikker)는 아버지의 제자이자 기업가인 해리슨 코너스(Harrison C. Connors)의 구애에 넘어가 결혼 후 그에게 주었는데, 사실 코너스는 미국 정부의 지시로 아이스-나인을 얻기 위해 그녀와 결혼했던 것이었다. 막내인 뉴트(Newt Hoenikker) 역시 우크라이나 태생 댄서인 징카(Zinka)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는데 그녀 역시 아이스-나인을 훔치기 위해 파견된 소련의 스파이였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소련, 그리고 신생 독재국인 산 로렌조까지 호니커 박사의 자녀들을 이용하여 아이스-나인을 확보한 것이다.

정작 지구를 멸망시킨 아이스-나인이 미국과 소련이 가진 것이

아닌 신생국 산 로렌조의 독재자가 가진 것이었다는 점은 역설적이다. 죽음을 앞두고 암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산 로렌조의 독재자 파파 문자노가 자살을 위해 아이스-나인을 사용했던 것이 확산되어 전 세계의 파괴로 이어지는 과정 역시 강대국 사이의 힘의 균형에서 보이지 않는 작은 균열이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2) 『고양이 요람』의 종말에 대한 사고실험

과학소설은 현재 주어진 정보를 기반으로 미래의 변수를 추정하는 외삽(extrapolation)으로서 뿐만 아니라, 실제 실험실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것을 상상력 속에서 실험하는 사고실험(thought experiment)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문학 장르이다. 어슐러 르 귄(Ursula Le Guin)은 과학소설의 사고실험적 기능에 대해 자신의 작품인 『어둠의 왼손』(*The Left Hand of Darkness*, 1969) 서문에서 “과학소설이 가진 근원적 기능 중의 하나”(르 귄 9)라고 하였다. 과학소설은 “자극적인 대중문화로서만 아니라 사고실험적 기능을 수행해 옴으로써”(Easterbrook 44) 정치 사회적 지배 담론에 반하는 역발상을 발휘하고, 주류에 우회적 비판과 풍자를 가하거나, 미지의 이상사회를 그릴 수 있는 것이다.

1960년대에 과학소설의 사고실험적 기능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냉전시대의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당시 일어났던 과학소설의 새로운 물결과도 관련이 깊다. 1960년대 영국의 과학소설 문단에서 확산되기 시작했던 ‘뉴웨이브’ 과학소설은 문학과 인문사회적 주제의식을 강조하며, 과학적 상상력에서 인문사회학적 관점으로 과학소설의 지평을 넓히려는 움직임이었다. 1960년대의 종말서사는 정치권력과 국제관계의 역학관계가 초래하게 될 재앙에 대한 사고실험이었다. 과학소설 속의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는 우주 패권

주의, 남성중심주의, 이념갈등은 물론 환경재앙³⁾ 등의 현실적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상상의 세계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레데릭 제임스는 과학소설의 이런 역할을 “현재에 대한 경험의 재구조화”(Jameson 286-7)라고 일컬었다.

『고양이 요람』의 종말 시나리오는 실험실에서 하기 어려운 실험을 상상으로 재현하는 사고실험이다. 이 작품 앞에 있는 제명(epigraph)에는 “이 책에 쓰인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다”(Nothing in this book is true)라고 적혀있다. 본 소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미리 규정해 놓은 것은 이 작품의 허구성을 강조하여 종말이 상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종말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내는 실험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첫 장에서 서술자인 요나(Jonah)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로 보이는 사건들이 가진 필연성에 대해 언급한다. 그는 기독교에서 보코논교로 개종한 사람인데, 보코논 교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의 의지를 실행하는 무리, 즉 “카래스”(karass)로 세상이 구성되어 있다고 믿는다(CC 2). 요나는 『세상이 끝난 날』(*The Day the World Ended*)이라고 가칭한 책을 자신이 쓰는 것이 필연적이었다고 한다.

3) 그랙 개러드는 『생태비평』에서 오늘날 환경적 상상력이 다룰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거대 은유가 종말서사라고 하였다(p. 142). 『폴의 죽음』(1956)과 같이 바이러스로 인한 식물의 죽음으로 종말에 이르게 되는 종말 서사는 물론, 『고양이 요람』도 아이스-나인이 전 세계를 얼게 만들어서 종말에 이른다는 점에서 인간은 물론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영향을 받는 환경재앙이라고 할 수 있다. 『고양이 요람』의 환경에 대한 이런 문제 제기는 교육적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보니것의 모교인 코넬 대학의 열역학 과목에서 아이스나인이 열역학적 법칙에 의해 현실적으로 어떤 결과를 낼 것인지를 지구온난화와 관련하여 사고실험을 하고 토론에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Charles Liberko, “Using Science Fiction to Teach Thermodynamics: Vonnegut, Ice-nine, and Global Warming”, *Journal of Chemical Education*, 2004, pp.81-84, 참조.

우리 보코논 교도들은 인류가 여러 무리로 구성되어 있고 이 무리들은 자신들이 무얼 하는지도 모르면서 신이 계획한 일을 실행한다고 믿는다. 보코논교도들은 이런 무리를 카레스라고 부른다. 캔캔이라는 도구는 나의 특정한 카레스, 즉 내가 끝내지 못했었던 책, 『세상이 끝난 날』이라는 그 책으로 이끌어갔다.(CC 2)

원래 『세상이 끝난 날』은 히로시마에 최초의 원자폭탄이 떨어진 날 미국의 중요 인사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다루기 위해 기획된 책이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책 제목처럼 요나는 세상이 끝난 날에 대해 적게 된 것이다.

그가 전하는 세상의 종말은 사소한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한 끝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종말의 심각성에 대비하여 이 사건들이 너무나 사소하기 때문에 종말이라는 주제와 이 사건들이 대비되는 간극이 유머를 자아내며, 그로 인해 생기는 비실제적이라고 느껴지는 감정으로 인해 독자와 작품 간의 서술적 거리가 유지된다.

한 예로, 파파 몬자노가 아이스-나인으로 인해 사망하고 그 시체를 만졌던 의사 폰 코니히스발트 박사(Dr. Von Koenigswald) 역시 아이스-나인이 되고 난 후 호니커 박사의 3자녀들은 예정된 행사를 끝내고 파파 몬자노를 화장해야 하기 때문에 그의 시체를 은밀하게 보트에 실어놓았다. 그 후 이들은 예정되었던 “100명의 순교자 민주주의 예식”(the Hundred Martyrs to Democracy ceremony)에 참여하여 에어쇼를 관람한다. 이 에어쇼에는 6대의 비행기가 자유의 적(Enemies of Freedom), 즉 피델 카스트로, 스탈린, 칼 마르크스, 마오쩌둥 등의 모습을 한 과녁을 쏘도록 되어있었다(CC 164). 그런데 비행기 중 한 대가 고장으로 추락했고 파파 몬자노의 성에 있는 탑 하나를 무너뜨렸다. 이어 그 잔해가 차례차례로 무너져서 파파 몬자노의 시체를 실은 보트가 파괴되고 아이스-나인이 되어버린 그의 시체가 바닷물에 닿는 순간 모든 것이 얼기 시작했던 것이다.

머리 위로 쏜살같이 날아가는 새의 울음소리에 나는 몽상에서 깨어났다. 마치 새가 "썹 썹"하며 뭐든 일이 일어났는지 묻는 것 같았다. 우리는 그 새를 모두 올려다보다가 이어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온통 겁에 질려서 그 심연에서 물러났고, 나를 지탱해줬던 포석에서 발을 떼자 포석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 파파가 산산조각이 나서 떨어지고 있었다. ... 나는 눈을 떴다. 그리고 온 바다가 아이스-나인이 되어있었다. 축축한 녹색의 지구는 청백색의 진주로 변했다. 하늘은 어두워졌다. 태양, 보라시시가 작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누렇게 뜬 공으로 변해있었다. 하늘에는 별레로 가득 찼다. 그 별레들은 토네이도였다. (CC 187)

마치 도미노가 무너지듯이 연속적으로 발생한 사건들로 종말에 처하게 되는 과정은 두렵기보다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연실색해 쳐다보는 사람들의 머리 위를 지나가던 새가 뭐든 일이 일어났냐고 묻는 듯이 썹썹거리고, 그 바람에 정신을 차리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도 희극적이기는 마찬가지이다. 더군다나 이 모든 사태에 직접적인 원인인 비행기 추락이 공산주의자들의 얼굴로 만든 과녁을 쏘기 위해 비행을 하던 중 일어난 사고라는 점은 냉전시대의 상대진영에 대한 적대감이 공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기도 하다. 아이스-나인이 핵무기를 비유한다는 것은 프랭크가 파파 문자노에게 아이스-나인을 주고 장군 자리를 얻은 것에 대해 뉴트가 "그런 식으로 그 멋진 자리를 얻었군, 파파에게 뭐라고 그랬어? 수소폭탄보다 좋은 게 있다고 그랬어?"(CC 173)라고 묻는 것에서도 볼 수 있다.

종말을 심각하게 그리지 않고, 실소를 자아내도록 그린 것은 오히려 작가가 세계대전 중 대량학살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민간인들이 대량으로 죽는 상황이 종말인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좌절감이 오히려 유머로 표현되는 것이다. 1973년 저술가 데이비드 스탠디시

(David Standish)와의 인터뷰에서 보니것은 “웃음이란 눈물과 마찬가지로 좌절에 대한 반응”⁴⁾이라고 하였다. 보니것에게 웃음은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절망에 대한 표현이며, 좌절 앞에서 나오는 웃음은 눈물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런 처절한 웃음에 대해 벤자민 쿤켈은 “독자들은 웃고 싶으면서도 웃기지 않다고 말하고 싶어진다. 보니것의 유머의 특징은 그의 개성이자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그가 처한 역사적 상황과 문제에 대한 반영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CC vi)고 하였다.

3. 인간성과 윤리의식이 없는 과학자의 위험성

1980년 로버트 뮤실과의 인터뷰에서 보니것은 자신은 기술의 발전이라 하면 꿈의 자동차나 꿈의 주택 같은 것을 꿈꾸었는데, 기술로 인해 드레스덴에서 13만 5000명의 민간인이 죽고 히로시마의 핵무기가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한탄했다. 보니것은 자신이 느낀 실망감을 열렬한 기독교도가 기독교인이 승리를 위해 벌인 대량학살을 보고 난 후 느끼는 환멸감, 영적인 공포(Spiritual fear)에 비유될 환멸감이라고 표현했다(Musil 232).

메리 셸리는 『프랑켄슈타인, 현대의 프로메테우스』(1818)에서 근대과학을 ‘불’에 비유했다. 불은 인간을 이롭게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파멸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4) David Standish, “Playboy Interview,” in *Conversations with Kurt Vonnegut*, William Rodney Allen ed., Jackson: UP of Mississippi, 1988, pp.89-90, 보니것은 “갇힌 개가 아무 소용이 없어도 문 밑을 파는 것처럼, 인간도 절망 앞에서 뭔가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우는 것이거나 웃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런 절망적 상태에서 나오는 웃음의 예로 흑인인권 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Jr.의 장례식에서 자신의 연설이 청중들을 크게 웃겼던 일을 이야기하였다.

과학도 윤리가 배제되었을 때 인간을 해치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보니것은 여러 인터뷰와 글을 통해서 인간성과 윤리를 배제한 과학기술이 가질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말했고 『고양이 요람』에서도 인간과 윤리에 대한 이해가 없는 과학자가 정치와 역일 때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서술자 요나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 원자폭탄의 아버지, 호니커 박사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기 위해 당시 6살 꼬맹이였던 호니커 박사의 막내아들 뉴트에게 편지를 보낸다. 또한 호니커 박사가 일했던 제너럴 포지 앤 파운드리 회사의 연구소를 방문한 요나는 호니커 박사와 함께 일했던 아사 브리드 박사(Dr. Asa Breed)를 만난다. 이때 요나는 브리드 박사가 이 세상의 문제는 과학 대신 미신을 믿는 것이며 언젠가 과학이 생명의 근본적인 비밀을 알아내고 지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연설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CC 18). 그의 연설은 『프랑켄슈타인』에 등장하는 근대과학자인 발트만 교수가 근대과학에 대해 말했던 부분과 흡사하다. 발트만 교수는 과학자를 “기적을 일구는 사람들이며 이들은 새로운 뿐 아니라 무한한 힘을 손에 넣었다”(셀리 58-9)라고 하였는데 과학의 무한한 가능성을 신뢰한다는 점에서 둘 사이의 유사성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브리드 박사는 한발 더 나아가 과학의 무한한 힘이 금전적인 능력으로 호환될 수 있음을 말한다.

“여기 그리고 이 나라의 극소수의 회사에서는 지식을 증진시키는 것, 오직 그 일을 한다고 봉급을 주고 있어요.” “제너럴 포지 앤 파운드리 사는 참 너그럽군요.” “너그럽다고 할 것까진 아니고, 새로운 지식이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값진 상품이죠. 연구할 진실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더 부자가 되는 거죠”(CC 29)

브리드 박사에게 있어서 지식이란 자본주의의 가치로 환산되는

상품인 것이다. 안젤라 호니커의 남편 코너스도 아이스-나인을 미국 정부로 넘기려는 기업가형 과학자였다는 점에서 마찬가지이다.

과학이 상품으로 팔리는 것 못지않게 위험한 것은 파파 몬자노와 같이 권력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정치가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다. 파파 몬자노는 죽음을 앞둔 자리에서 국민에게 과학을 가르치라는 유언을 하며 “과학은 실제로 작용하는 마법”(CC 156)이라고 한다. 이렇듯 과학은 자본가에게는 부를 가져다주는 상품이고, 독재자에게는 국민을 통제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해 줄 수 있는 현대판 마법이다. 과거 연금술을 통해 금속을 금으로 바꾸려고 했다면 현대의 연금술은 과학을 통해 원하는 재화와 권력을 손에 넣는 것이다. 미국, 소련, 산 로렌조가 각각 아이스-나인을 획득하려고 하는 것은 현대의 연금술이 된 과학의 힘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호니커 박사는 과학의 사회적 의미나 인간 자체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브리드 박사의 형제이자 묘지 관리인인 마빈 브리드는 호니커 박사에게 대해서 “그는 죽은 상태로 태어난 사람 같았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토록 무관심한 인간을 본 적이 없다”(CC 48)고 말한다. 이 말처럼 호니커 박사는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철저하게 무관심하였다.

호니커 박사가 원자폭탄 실험을 놀이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몇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알 수 있다.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기분전환으로 어떤 게임을 하느냐고 하자 “사방에 게임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내가 만들어진 게임으로 시간을 죽내겠습니까?”(CC 8)라고 대답을 한다거나, 호니커 박사가 원자폭탄 실험에 속도를 내지 못해 동료들이 딸인 안젤라에게 도움을 청하자 안젤라가 박사의 실험실에서 장난감을 치우면 실험에 몰두할 것이라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되었던 것이 그 예이다. 안젤라의 충고는 호니커 박사가 가지고 놀 장난

감이 없어지면 또 다른 놀이로 원자폭탄 실험을 할 것이라는 뜻이었다. 박사의 정신적, 윤리적인 미성숙은 호니커 박사가 원자폭탄 실험이 최초로 성공했을 때 동료 과학자가 “이제 과학이 죄를 알게 되었다”(CC 13)라고 말할 때 호니커 박사가 “죄가 무엇이나”라고 반문하였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박사는 실뜨기 놀이를 하며 ‘고양이 요람’이라 불리는 모양을 만들었다.⁵⁾ 자신의 아이들과 한번도 놀아준 적이 없었던 그는 우연히 고양이 요람 모양을 만드는데 성공하자,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던 뉴트에게로 갑자기 다가와서 고양이 요람 안에 귀여운 고양이가 자고 있다고 말한다. 어린 뉴트는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태도에 깜짝 놀라는데, 그때 얼마나 아버지가 공포스럽고 혐오스러웠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렇게 가까이에서 보니, 아버지는 제가 본 가장 추한 생물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모습이 자꾸 꿈에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노래를 부르셨어요. “잘 자라 야옹아, 나무 꼭대기에서. 바람이 불면, 요람이 흔들릴 거야. 가지가 부러지면, 요람이 떨어지겠지. 요람도 야옹이도 모두 떨어질 거야.” 저는 울음을 터트렸어요. (CC 9)

어린 뉴트의 눈에 고양이 요람이란 실을 엮어 격자 모양을 만든 것일 뿐인데 아버지는 무서운 얼굴로 그것이 고양이 요람이며 그 안에는 고양이가 있다고 강요한 것이다. 후일 뉴트는 “아이들이 서서히 미쳐간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니죠. 고양이 요람이라는 게 두 손에 걸어 놓은 X자 실다발에 불과한데, 어린애들은 그 X자를

5) 실뜨기에서 고양이가 들어가서 누우면 될 것처럼 아래로 오목한 바구니 모양이 되는 상태를 고양이 요람이라고 부른다. 토마스 마빈은 실뜨기가 실을 원형으로 묶어서 진행되는 게임이라는 점에서 본 소설의 서사적 형태와 비슷하다고 한다. Tomas F. Marvin, *Kurt Vonnegut: A Critical Companion*, Sestport Conn: Greenwood publishing group, 2002, p.90.

보고, 또 보고, 봐도 빌어먹을 고양이도 없고, 빌어먹을 요람도 없고”(CC 118)라고 한다. 즉 뉴트에게 고양이 요람은 ‘거짓’을 의미하는 상징이 되었다. 안젤라의 말을 들으니 결혼생활이 행복한 모양이라고 요나가 말하자 뉴트가 “고양이 요람이 보이지 않냐?”(CC 128)고 대답하는 것에서도 뉴트의 이런 생각을 알 수 있다.

‘고양이 요람’이 상징하는 바는 뉴트의 생각처럼 거짓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 토마스 마빈은 실뜨기 놀이의 재미가 한 모양을 다른 모양으로 계속해서 바꾸는 것(transforming one figure into another)에 있다는 점에서 고양이 요람의 의미는 계속 바뀔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고양이 요람 실뜨기의 격자무늬와 산 로렌조의 대통령궁이 가벼운 강철 지주와 빔을 격자형으로 된 것(a cunning lattice of very light steel posts and beams)이 통한다고 하였다(Marvin 91). 건축에서 격자가 압력을 분산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지키듯, 산 로렌조는 겉으로는 보코논교가 압제를 받고 있지만 사실 보코논교의 창시자인 얼 맥카베(Earl McCabe)가 독재자 파파 몬자노의 친구였고 격자가 서로를 지탱해 주듯, 이 둘이 적대를 가장하여 서로를 받쳐주는 “역동적 긴장”(dynamic tension)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Marvin 91).

이들은 함께 산 로렌조로 온 후 국민의 행복을 위해 각각 독재자와 성자가 되었고(CC 124-5) 서로의 존립을 위해 파파 몬자노는 보코논교도들을 갈고리에 걸어서 죽이는 형벌을 내리며 박해하고 보코논교는 박해를 받으며 교세를 늘이는 특이한 공생관계를 이루었다. 절망적으로 가난한 섬사람들을 위해 한 명은 종교를 만들어 사람들의 삶의 짐을 덜어주고 한 명은 독재자가 되어 지상낙원을 만들려고 한 것이다. 아이스-나인이 결국 이 궁전을 파괴한다는 것은 긴장 관계로 균형을 유지하는 상태에 돌발적 인자가 들어오면 그것이 쉽게 파괴되어 버리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냉전시대 강대국 간의 긴장관계가 가지는 취약성

과도 통한다.

호니커 박사가 만들었던 고양이 요람은 상징성만큼이나 그때의 상황 자체가 말해주는 것이 있다. 호니커 박사가 고양이 요람을 만들고 그걸 아들 뉴트에게 자랑했던 날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던 날이었다. 원자폭탄의 투하나 드레스덴 사태는 2차 대전 중 연합군이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했던 작전인 동시에 많은 인명이 살상된 문제의 사태이기도 했다. 그런 역사적으로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날에 정작 원자폭탄의 아버지는 그런 불행에 대해 무관심했던 것이다.

히로시마 민간인들의 희생에 대해 그가 무관심했다는 것은 그가 만든 고양이 요람의 끈의 출처와도 상관이 있다. 그 끈은 친형제를 살해한 죄로 형을 사는 죄수가 쓴 『서기 2000년』이라는 소설 원고를 묶은 끈이었다. 이 소설은 서기 2000년에 과학자들이 만든 폭탄으로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종말 서사로, 호니커 박사에게 읽어주기를 부탁하며 보낸 원고였다. 호니커 박사는 원고를 전혀 읽지 않았고 오로지 원고를 묶었던 끈에만 관심을 보였다. 뉴트는 “원자폭탄이 떨어지던 날 아버지의 관심사는 끈이었다”(CC 8)라고 하는데 박사는 종말을 담은 소설의 내용보다는 가지고 놀 수 있는 끈에 더 관심이 갔던 것이다.

보니것은 스탠디쉬와의 인터뷰에서 과학자들은 자신이 진리를 캐는 일(unearthing truth)을 하고 있으며, 진리가 사람을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정치가나 산업가들이 과학적 발견의 함의를 이용했다고 하였다(Standish 97). 죄가 무엇이냐고 반문하는 호니커 박사는 과학적 발견이 인간사회에 일으킬 여파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보니것은 이런 과학자의 위험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4. 요나의 서사, 보니것의 서사

『고양이 요람』의 첫 줄은 “나를 요나라고 불러라”(CC 1)라는 서술자의 말로 시작한다. 이 첫 문장은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딕』의 첫 줄인 나를 이스마엘이라고 부르라고 하는 구절을 연상하게 한다(Standish 94). 『모비딕』에서 흰고래를 죽이려는 에이함 선장의 계획이 오히려 모든 선원이 죽는 결과를 낳고 『고양이 요람』에서도 전쟁을 수월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아이스-나인으로 인해 모든 인간이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처럼 두 작품 모두 인간의 지식과 이해력이 예상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Standish 94).

서술자 존은 본문에서 자신을 요나라고 불러 달라고 한 까닭이 사람들의 생각처럼 자신이 운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⁶⁾ 누군가가 자신을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 데려다 주어 예정대로, 매번 정해진 순간, 정해진 장소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CC 1). 최악에 찬 니스웨성에 심판이 내리리라는 예언을 해야 하는 요나는 적국인 앗시리아의 수도 니스웨에 가기 싫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하지만 그는 결국 예정대로 니스웨에 가게 되었는데 『고양이 요람』의 서술자 요나 역시 종말을 위해 정해진 장소로 가게 되었던 것이다. 서술자 요나는 『세상이 끝난 날』이라는 책을 쓰려고 뉴트를 비롯한 호니커 박사의 주변인들을 인터뷰했다가 프로젝트를 중단했었다. 하지만 선지자 요나가 고래배속에서 나와 본의 아니게 니스웨성으로 가게 되었듯 결국 그도 『세

6) 구약성경의 『요나서』에 등장하는 선지자 요나는 적국인 앗시리아의 수도 니스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배가 조난을 하고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을 보냈고 불운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다. 『고양이 요람』은 종말로 끝이 났지만 니스웨 성은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요나의 예언을 듣고 참회하여 종말이 오지 않았다.

상이 끝난 날』이라는 책 제목처럼 세상의 끝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게 되었다.

원래 요나는 『세상이 끝난 날』에서 원자폭탄의 기술적인 면보다는 인간적인 측면을 다루고자 했다. 뉴트에게 보낸 편지에서 요나는 자신이 무엇을 다룰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폭탄이 투하되었을 때 당신이 어린아이였다는 것, 그리고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책은 원자폭탄의 기술적인 측면보다 인간적인 측면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의 눈을 통해 바라본 그날의 추억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더할 나위 없이 적절한 것입니다.(CC 5)

요나가 원자폭탄의 인간적인 면을 다루고자 한 것은 그가 과학과 기술이 인간에 끼칠 중요성에 대해 걱정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제명에서 이 책의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밝힌 채 서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요나의 서술은 종말서사의 진지함에서 계속 벗어난다. 진지해질 만한 장면이 되면 요나는 어김없이 보코논서의 구절을 인용하는데 이 과장되고 맥락 없는 인용구 덕분에 진지함은 유머러스한 것으로 대체되고, 종말로 치닫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우행이 더 부각되는 것이다. 한 예로 산 로렌조에서 아이스-나인 사태가 터지고 파파 몬자노가 만든 대피소이지만 이름은 “지하감옥”(the Oubliette)인 곳으로 피난을 갔을 때 요나는 보코논서 6권을 아래와 같이 인용한다.

“혹시 내가 갈고리에 끼우는 형틀로 처형을 당한다면” 보코논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매우 인간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하라” 그리고 나서 보코논은 사지를 묶어서 잡아당기는 고문, 손가락에 가하는 고문, 철심이 박힌 관으로 하는 고문, 항문에 가하는 고문, 그리고 지하감옥에 대해 말한다.

“어떤 고문이든 어차피 우는 소리는 많이 나게 마련이다.
하지만 지하감옥 만든 죽어가는 동안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이
다.”(CC 189)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에 대해 미리 예측한 보코논서의 구절이
매번 있다는 서술자의 말이 믿기지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들
이 죽고 피난하는 상황에 대한 묘사 역시 종말의 심각함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말이 안 되는 방향으로 치달아가는 냉전시대의 시
대적 상황을 상상하며 실소를 머금게 하는 것이다. 웨플러는 보니
것이 리얼리즘과 과장을 혼합하여 이질적인 농담을 만드는데, 보
니것이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과장하는 것이 다른 방식으로는 알아
차릴 수 없는 우리와 우리 세계에 대한 진실을 인식하게 한다고
한다(Wepler 99).

요나가 도피하는 파파 몬자노의 대피소는 불어로 “Oubliette”(지
하감옥)이지만 이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이것이 ‘망각’을 의미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Ullrich 149). 요나는 갓 결혼한 자신의 아내
모나와 함께 〈지하감옥〉으로 피신한다. 하지만 종말을 앞두고 아
이스-나인을 먹고 자살을 선택한 모나와 달리 그는 〈지하감옥〉에
서 나가 종말을 목격하는 선택을 한다. 요나는 마지막 장에서 연
필과 종이를 들고 있는 보코논과 마주하게 되는데 이때 보코논이
내민 종이에 “인간의 어리석음을 다룬 역사서를 쓰겠다”라는 말
이 적혀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지만 요나는 아마 이후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는 글을 보코논 대신 완성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
다. 망각을 의미하는 보호소에서 나와 보코논의 글을 받는 요나의
행동은 망각하는 것을 거부하고 기억하는 것을 선택한 것을 의미
한다.

보니것은 인터뷰에서 작가의 사회적 임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의 동기는 정치적인 것이다. 나는 작가가 사회에 봉사해야한다는 스탈린, 히틀러, 무솔리니의 말에 동의한다. 단지 그들 독재자와 다른 지점은 어떻게 사회에 봉사하느냐 하는 것이다. 주로 나는 작가가 변화의 대행자(agents of change)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다 나은 것을 우리는 바라야한다(Standish 76).

그는 반전운동가로서 60년대 베트남전쟁에 미국이 참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활동을 했는데, 이에 대해 그는 예술가의 임무를 석탄광산에 가스가 차기 전에 위험을 알리는 카나리아 새에 비유했다(Standish 76-77). 드레스덴에서 직접 전쟁의 참상을 겪었던 그는 베트남전이나 이라크전쟁 모두에 미국이 힘을 행사하는 것을 반대했다. 이런 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이 작가가 할 일이라고 본 것이다.

도널드 모스(Donald E. Morse) 역시 보니것은 미국인들이 망각의 여신인 레스모시네(Lesmosyne)을 떠나 다시 기억의 여신인 므네모시네(Mnemosyne)로 돌아가야 할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실과 과거의 일이 유기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역사 없는 현재를 사는 것에서 벗어나 물고기가 물에서 살 듯 역사 속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였다(Morse 195). 『고양이 요람』에서 세상의 마지막 순간에 보코논이 손에 종이와 연필을 들고 있다는 것과, 요나가 세상의 마지막 날을 기억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2차 대전의 참상을 기억해야 하며 냉전시대의 종말은 그런 참상의 되풀이임을 알려야 한다는 작가의 생각이 투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결론

흔히 종말 서사라면 핵전쟁, 대량학살, 생존자들의 생존을 위한 혈투, 공멸과 같은 파괴적인 요소들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종말 서사의 이면에는 거꾸로 종말에 이르지 않고 생존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상상이 들어 있다. 즉 종말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통해 오히려 종말을 피해 가는 길을 찾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고양이 요람』에서의 종말 시나리오가 작품이 출판될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고양이 요람』은 후르시초프와 케네디 대통령이라는 냉전시대의 거물이 주도한 원자력 무기개발 경쟁과 우주 개발 경쟁 속에서 사소하고 우발적인 인자로 인해 종말로 향하는 연쇄반응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아이스-나인이라는 물질로 보여주었다. 또한 과학자들이 과학적 산물이 인간에게 미칠 영향력에 대해 무관심한 것과 상대진영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것도 불사하는 냉전시대의 정치적 논법이 맞물린다면 사소한 불씨도 종말을 일으키는 큰 불이 될 것이며, 이런 종말 상황은 인류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거대한 환경적 재앙이 될 것임을 보여주기도 했다.

보니것이 종말이라는 주제를 택한 것은 독자들에게 과학, 과학자, 그리고 인간의 행동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종말이 닥칠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Robinson 54). 과학소설은 지금까지 미래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상상이기도 했지만 현실적 문제가 초래할 수 있는 파국에 대한 상상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보니것은 작가가 사회적 문제에 경고를 해야 하는 임무가 있음을 여러 곳에서 이야기해왔고, 또한 서술자 요나를 통해서도 말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고양이요람』은 과학소설적 장치를 통해 냉전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파국을 묘사하는, 과학소설이 내놓은 경고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Vonnegut, Kurt, *Cat's Cradle*, New York: Penguin Classics, 1963, 2008.

2. 논문

손나경, 「1960년대 과학소설의 젠더와 이상사회에 대한 사고실험-『어둠의 왼손』과 『완전사회』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제44권 10집, 2022, pp.1-16.

홍덕선, 「파국의 상상력: 포스트모더니즘 문학과 재난문학」, 『인문과학』, 제57집, 2015, pp.5-39.

Easterbrook, Neil, "The Sublime Simulacra: Repetition, Reversal, and Recovery" in Lem's *Solaris*, *Critique* Spring 36-3, 1995, pp.177-194.

Liberko, Charles A, "Using Science Fiction to Teach Thermodynamics: Vonnegut, Ice-nine, and Global Warming," *Journal of Chemical Education* 81-4, 2004, pp.509-512.

Morse, Donald E, "Kurt Vonnegut: The Representative Post-World War II American Writer," *Hungarian Journal of English and American Studies* 21-1, 2015, pp.195-210.

Musil, Robert, "There Must Be More to Love Than Death: A Conversation with Kurt Vonnegut," *Conversation with Kurt Vonnegut*, William Rodney Allen Ed. Jackson: UP of Mississippi, 1988, pp.230-239.

Robinson, David, "Vonnegut and Apocalypse: A Consideration of Kurt Vonnegut's Representation of the End of the World", *Scrutiny* 23-2-3, 2018, pp.42-55.

Standish, David, "Kurt Vonnegut: Playboy Interview," *Conversation with Kurt Vonnegut*, William Rodney Allen Ed. Jackson: UP of Mississippi, 1988, pp.76-110.

Ullrich, David W, "The Function of 'Oubliette' in Kurt Vonnegut's *Cat's Cradle*", *The Explicator* 70-2, 2012, pp.149-152.

Vonnegut, Kurt, "Address to Graduating Class at Bennington College",

1970, <https://jsomers.net/vonnegut-1970-commencement.html>
Wepler, Ryan, “‘I Can’t Tell if You’re Being Serious or Not’: Vonnegut’s Comic Realism In *Slaughterhouse-Five*”, *Hungarian Journal of English and American Studies* 17-1, 2011, pp.97-215.

3. 단행본

그랙 개러드 지음, 강규한 옮김, 『생태비평』,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메리 셸리 지음, 김선형 옮김, 『프랑켄슈타인』, 문학동네, 2014.
어슐러 K. 르퀸 지음, 최용준 옮김, 『어둠의 왼손』, 시공사, 2020.
존 루이스 개디스 지음, 정철, 강규형 옮김, 『냉전의 역사: 거래, 스파이, 거짓말, 그리고 진실』, 에코 리브르, 2010.
Jameson, Fredric, *Archeologies of the Future: The Desire Called Utopia and Other Science Fiction*, New York: Verso, 2007.
Marvin, Tomas F. *Kurt Vonnegut: A Critical Companion*, Sestport Conn: Greenwood Publishing Group, 2002.

(투고일: 2023. 5. 22 심사완료일: 2023. 6. 19 게재확정일: 2023. 6. 23)

손나경 소 속: 계명대학교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전자우편: na1007@kmu.ac.kr
--

[Abstract]

Thought Experiment on Relations of Politics, Science,
and Environment through the Apocalyptic Scenario in
the 1960's Science Fiction

: in Case of Kurt Vonnegut's *Cat's Cradle*

Sohn, Na-Gyung

This paper examines Kurt Vonnegut's *Cat's Cradle*, a classic of 1960s apocalyptic science fiction, as a thought experiment that illustrates how political, scientific, and environmental contingencies can contribute to an apocalypse. The end-of-the-world scenario depicted in *Cat's Cradle* reflects the anxieties of the Cold War era. The novel's creation of a new substance, Ice-nine, by the scientist Dr Felix Honicker, highlights the devastating consequences of combining a scientist devoid of social responsibility with politics driven by hegemonic ambitions. This combination could act as a catalyst for the destruction of the entire human race and the global environment.

This paper argues that the thought-experimental nature of the apocalypse in *Cat's Cradle*, as well as the narrator Jonah's recording of events, serves as a warning against the potential destruction caused by human misbehavior. Vonnegut's intention to issue this warning stems from his perception of the responsibility of authors to emphasize the consequences of such misbehavior.

Key words : Kurt Vonnegut, *Cat's Cradle*, Apocalyptic narrative,
Ice-nine, the 1960s, anti-war movement